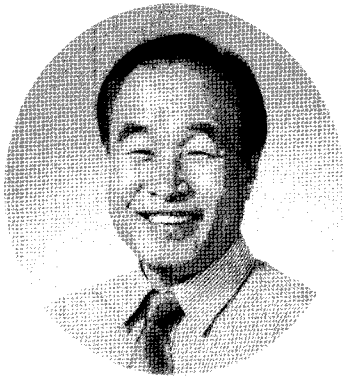


프랑스의 양봉(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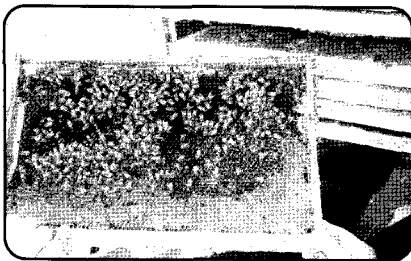
France

Beekeeping Industry(2)



우 건 석 서울대 명예교수
아시아 양봉연구협회 부회장
(사진제공 : Sue M McConnell)

Woo Kunsuk
Emeritus Prof. of Seoul NatL.Univ.
Vice president of AAA



지난해 9월15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휴양도시인 몽펠리에에서 열렸던 제 41차 세계양봉대회(국제양봉연합 주관)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100여개 국가에서 만여명이 참석하였으며 300여개의 전시 부스에서는 양봉산물과 양봉 기구가 다양하게 전시되었으며 200여명의 과학자도 참가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전세계양봉인을 위한 축제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봉인이 참가했던 대회는 최근 들어 처음있는 일이었는데 아마도 유럽은 지형적으로 여러 나라가 가까이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쉽사리 오갈수 있는 교통망이 이루어진 대륙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리한 환경조건 만으로 여러나라의 양봉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발전한 기술을 눈으로 직접보고 알아보겠다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월호에서는 프랑스의 개황을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 다. 프랑스는 인구가 약 육천만명, 국토면적은 547,030 km²로 유럽의 대표적인 농업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의 양봉인은 84,480명입니다. 봉군수는 1,370,220군이며 군당 꿀생산량은 22kg입니다. 그나마 매년 국내의 꿀 소비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약 8000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3000톤은 EU여러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갖고있는 평균 봉군수는 약 16군 수

준입니다. 국토면적에 비해서 봉군의 수가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소규모의 양봉경영을 모델로

전국적으로 98개 지역구에 145,739 양봉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양봉법에 의하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양봉 농가는 대부분 동부와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유럽 여러나라와 같이 프랑스도 전업양봉가는 약 15%이고 취미 양봉농가가 85% 이상이므로 소규모의 양봉경영을 모델로 하는 정책지원이 잘 이루어진 편입니다. 생산한 벌꿀은 전업양봉규모나 취미양봉(부업으로) 관리에 구별없이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규모가 큰 전업농가에서는 도매를 목적으로 판매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양봉농가는 스스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소매를 하는데 소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 합니다. 판매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지역행사때 열리는 벌꿀 페스티벌,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전시 판매하게 됩니다. 고정적인 판매는 지방도시에서 지정해준 장소를 번갈아가며 노상판매 하는 등 유통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화분매개사업은 복숭아, 살구, 체리, 사과, 키위 등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수분을 산업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딸기 재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화분매개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데 문제가 된 봉군의 실종현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봉의 과학화를 위하여

프랑스에는 양봉과 관계가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농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봉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에는 SNA(파리), SPMF(Cusset), UNAF(프랑스양봉연합,파리), FNOSAD(국립연방 꿀벌위생부, Riez), DGAL(파리) 등이 있으며 분야별로 업무를 맡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주로 행정지원, 민원처리, 그리고 양봉을 시작하려는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훈련을 맡기도 합니다. 또한 양봉의 과학적 연구



구를 전담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NRA를 들수있습니다. 프랑스정부의 중요한 국책연구사업의 기획이나 프로그램을 세워 전반적인 과학기술연구를 맡고있는 연구소입니다. 예를 들면 아비뇽에 있는 Agroparc(농업관련연구단지)의 동물연구시험장은 꿀벌의 질병을 연구하는 사업과 꿀벌의 건강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FSSA 연구소는 소피아안티폴리스에 있는 연구소이며 국가의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농가에 도움을 주는 연구를 실시합니다. 꿀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투로우시시에 자리잡은 폴 사바티에 대학 곤충뇌생물연구실을 소개할수 있습니다.

전업으로 운영하는 상업양봉의 진흥과 화분매개사업, 그리고 농촌 개발을 돕기위해

Apiservices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알려진 모든 양봉현황 등을 소개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중요한 활동을 설명드리면 일반인, 학생, 그리고 전문연구자 등에게 개인 지도를 하는 일, 연구 과제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는 일, 양봉생산물의 시장 유통을 돕기위한 기술적 know how 를 소개하는 일, 새로운 idea를 발굴하는 등 시장에서의 유통 사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양봉기구가 개발되면 실용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새로운 꿀벌품종에 대한 육종기술이나 선발하기 위해 다른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을 위한 인터넷 software 개발. (오디오-시청각자료, 기재, CD rom), 세미나 발표 등 훈련을 실시합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사업에는 해외여러 나라에 양봉기술을 전수하는 과제를 꼽을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르헨티나, 중국, 몽골, 르완다, 베트남에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밖에 양봉과 관계되는 서적도 발간하였습니다.

프랑스양봉연합의 활동

프랑스양봉연합은 최근에 해바라기의 꿀생산이 줄었고 다만, 산간 지역의 초원과 숲에서, 그리고 남부지방의 밤나무 숲에서만 꿀이 생산되었을 뿐이며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바라기 꿀의 생산이 줄어던 이유를 Apimondia의 과학 담당관 Arnold씨는

살충제의 사용, 꿀벌응애의 기생으로 꿀벌의 건강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라 하였습니다.

2009년 4월 28일 로이터 통신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의 양봉산업이 최근 10년 사이에 꿀벌을 괴롭힌 질병들, 살충제의 사용과 농업경영 방법의 영향으로 쇠퇴한 것으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유럽 양봉이 앞으로 8년이나 10년이 남았을 뿐이라고 Gilles Ratia 세계양봉대회 회장이 설명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럽에서만 1360만봉군이 줄었으며 피해율은 30%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식량작물의 35%가 반드시 화분 매개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꿀벌의 감소현상은 양봉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프랑스에는 여러가지의 양봉잡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beilles & Fleurs(월간)는 UNAF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1973년 OPIDA의 의해 발간되는 Bulletin Technique Apicole는 계간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또한 FNOSAD에서 계간으로 잡지를 출판하고 있으며 SNA에서는 월간으로 L'abeille de France가 출판되고 있습니다. 양봉관련 정보를 다루는 잡지에는 Info Rines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양봉 산물과 꿀벌의 품종 선발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봉**